

연중 제18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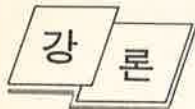
제 1 독서 : 전도 1, 2 ; 2, 21-23

제 2 독서 : 골로 3, 1-5, 9-11

복 음 : 루가 12, 13-21

순정이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골로 3, 2).



말씀을

가볍게 듣는 우리네들



강인찬 신부 / 덕진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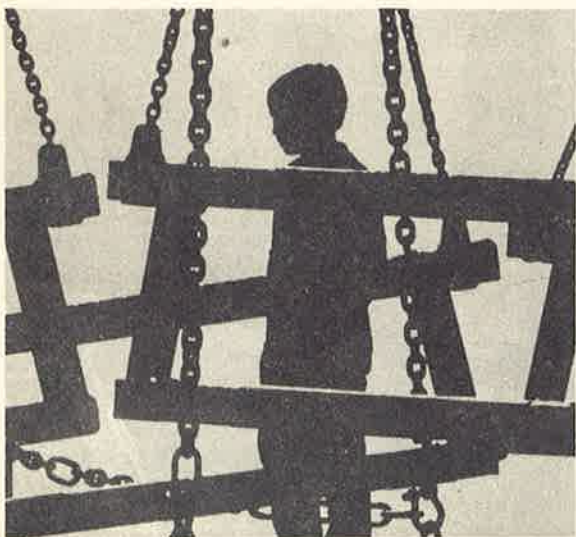
하느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의문이나 열정이 없이 오직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의거하여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가볍게 말씀을 듣고 가볍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심각히 받아들였으면 한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의 마음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사정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군중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재산 상속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젊은이가 등장한다.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와 군중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 입을 열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주신다. 일평생을 재산 모음으로써 전력을 다한 부자. 어느 날 그 부자는 쌓아 놓은 재산을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재산을 위해 생명을 다했지만 재산이 그의 생명을 구해줄 수는 없음을 알지 못했다. 재산을 사용할 줄 아는 그였다면 보다 가치있게 사용했을텐데. 또한 그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화라는 것이 인간에게 보다 큰 가치와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또한 재화가 갑작스레 들이닥치는 죽음에서까지 인간을 보호해주거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생길 수 있는 선이나 악의 문제를 제쳐놓을 위험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인간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재산만 생각하는 그 부자의 이기심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뿐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독백은 자기 스스로 차디찬 감옥을 지을 뿐이다. 또한 계산이 철저하고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던 그가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자기 재산에 의해 보장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여기는 부자의 입장을 이중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다. 사실상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즉 그는 아둔하고 앞을 내다볼 줄 모르며 전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다. 죽게 되는 순간에 하느님 앞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갖지 못한 ‘가난한 자’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같이 될 것이다”(루가 12, 21).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자.



여 명 >>

8월의 빛과 그림자

신광연(가브리엘)

산과 들은 온통 청록색으로 물들었고 맑으면서도 따가운 햇살은 대지에 흑백이 선명한 명암을 수놓는다.

여름의 한복판에 자리한 8월.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던 학업으로부터 해방된 학동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산과 바다를 찾는다.

들에는 땅맛을 실컷 들인 오탁이 싱싱하고 푸른 잎으로 햇볕과 대기중의 열기를 힘차게 빨아들이며 새록새록 성장하고 산야의 수목도 한껏 무성함을 자랑한다.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다는 좀 좋은가. 인어들이 뛰노는 모래사장 너머로 무수한 고기비늘 무늬의 해면에 눈부신 햇살이 화사하게 부서진다.

이같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은 무더위에 불평을 일삼으면서도 대개는 낙천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입추, 말복을 지나 처서 무렵이면 아침저녁으로 시원해지는 기온에 가을이 한발짝 다가왔음을 느끼게 마련이다. 시골 아닌 도심에서도 밤이면 귀뚜라미, 여치가 청아한 음색으로 가을을 재촉한다.

이때쯤 농부들은 가을 채소를 파종하고 더욱 맑아진 하늘은 높아만 간다. 학동들이 새학기 개학을 맞을 때쯤 장년층은 하루가 다르게 수은주가 하강하는 가운데 벌써 한해가 기울어감을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된다.

계절의 8월이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듯 역사의 8월에도 명암은 엇갈린다. 광복절과 한일합병조약이 이루어진 국치일이 불과 2주 간격으로 이달 중에 있음부터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다.

15일은 해방 후 47번째로 맞는 광복절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라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해도 좋을 정도다. 일제의 수탈로 거의 한계상황의 빈궁에 빠져 있던 형편에서 누구의 꿈이 되었던 건강하고 특별히 불운하지 않는 한 생활 걱정은 하지 않을 만큼 여유를 갖게 되었다.

“돌아가는 손님의 뒷모습이 예쁘다”는 말이 성행했을 만큼 식생활이 어려워 농사철에 날씨가 조금만 가물어도 흉년이 들까봐 마음 졸이던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형편이 나아진 것인가.

식생활만이 아니라 의생활과 주거생활의 수준도 과소비를 걱정할 만큼 향상되었다.

제일 낙후됐다고 지적되고 있는 정치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 정부 수립 직후의 오랜 1인 독재가 막을 내리자마자 등장해 6·29가 있기까지 지속됐던 군사문화도 최소한 외양으로는 막을 내렸다.

이밖에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냉전으로 남과 북을 갈라 놓은 38선은 군사분계선으로 바뀌어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금에도 소멸되지 않은 채 온 거래를 옥죄고 있다.

88년의 7·7선언과 지난해의 남북합의서 교환에도 아랑곳없이 바위인 양 버티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문규현 신부 등 방북인사를 포함한 6백여명의 시국사범을 아직도 어둠 속에 묶어 놓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의 인권기구들은 계속 한국을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 결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치일 표시가 달력에서 사라진 지도 오래다. 광복절이 있어 해방의 그날을 되새겨 보게 되는 8월을 맞으며 아직도 나라 곳곳에 드리워진 음습한 어둠이 하루빨리 말끔히 가셔지기를 기원한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로마 8, 20-21).

숲정이 산책



▶ 주님이 계시기에

북녘땅의 고향



박춘석(요셉)/장수 성당

고향! 누구나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곳, 그곳이 도 사이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뛰놀고 자랐던 그 땅을 잊을 수는 없다. 더구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녘 하늘의 그곳이라면 더욱 애절한 마음이야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으리라.

그 잃어버린 고향을 마음에 묻으며 살아온 박춘석(요셉·68세) 회장, 그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천군 양화면으로 산 좋고 물 좋은 땅에서 부모님과 1남 4녀의 형제가 과수원을 하며 평화로이 살았던 곳. 그러나 해방 이후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에 잠시 월남한 것이 1949년 4월 초순, 그 당시에는 통일이 얼마 안가서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부모·형제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던 것이 어언 42년의 세월이 지날 줄이야.

여느 때 할으면 주문진까지 3일 걸릴 시간이 비바람 때문에 9일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남녘땅에 도착하니 부풀었던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경찰서, 헌병대에 불려가서 간첩으로 오해받아 온갖 고생을 당하였을 때는 기대감이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뒤바뀌었다.

수용소에서 한 달쯤 감금된 후 풀려나와 서울에 있는 사촌형님을 찾아가서 지내다가 경찰로 근무도 했고, 군인

비슷한 계몽대원으로 남원에서 일하게도 되었는데 그곳에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최양옥·모니카·63세)을 만나 외동딸을 슬하에 두었다. 그후 급산으로 가서 인삼 장사를 했다가 실패, 62년에 장수로 오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그는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여 차근차근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중 박기준 신부의 부친을 만나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78년이였다. 신앙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 그 아픔이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무거운 멍에처럼 따라다녔었기에.

“명절만 되면 계속 울으셨어요”라고 부인이 그의 마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수 성당 제2대 사목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비록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 안에서 부모·형제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여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본당 사목회장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하고 웃으시는 그 모습에 어쩐지 안타까움과 희망이 엇갈려 스쳐간다.

▶ 신자들의 소리

취소서, 어머니!

이태현(스테파노)/임실 성당

리오바(64세)님이 하느님께로 가시던 날은 무척 더웠으며 아들 김기수 신부를 비롯해 교육자인 남편과 자녀들, 교형 자매들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었습니다.

아들 신부를 낳기 위해 해산의 아픔을 이겨내듯 3년 동안 병마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습니까.

연약한 손에 목주를 쥐시고 고통을 고귀하게 참아내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고통을 아들 신부를 위해 참고 견디며 봉헌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던 리오바님의 거룩한 모성애에 성모님이라도 만난듯 경탄했었습니다.

리오바님! 눈물도 없으리라 여겼던 아들 신부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주교 공원묘지에 묻히시던 날은 이백여명의 교형 자

매들이 모여서 지켜보았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동료 신부들도, 수녀들도... 특히 막내 손녀가 “우리 할머니를 이제는 못 보게 되나요?”라고 부르짖을 때는 더더욱 울음이 커졌습니다. 신기한 일은 리오바님이 묻히던 그 시간에 당신의 아들 신부가 머무는 임실지방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비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흘린 눈물이 소낙비로 승화되어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신부의 성직생활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이 세상에서의 참 뜻을 간직하시어 하느님 나라에서도 많은 기도와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리오바님,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문규현 신부 방문기



문규현 신부,

지난 7월 8일 교구장 이병호 주교와 몇몇 신부들이 문규현 신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오는 8월 15일이면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다 붙잡혀 구속, 감옥에 갇힌 지도 벌써 3년이 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문규현 신부의 근황을 정리해본다.

* 문규현 신부의 건강과 하루

지난 7월 8일 오전11시 우리 일행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주교도소 안에 들어가 1시간 남짓 기다리다가 문규현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신부님을 마주 보는 순간, 신부님의 환한 모습에도 심장이 멎고 목이 메이는 것은 왜일까? 신부님은 조금은 죄인 같은 우리의 아픔을 훑쳐보았는지 모르겠다. 짧지만 깊은 침묵 후에 우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의 안부와 건강을 묻고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다.

신부님의 건강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어떻게 건강을 지키냐는 물음에 신부님은 쉽게 대답했지만 내가 볼 때 신부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신부님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신부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성무일도(사제들이 바치는 기도)를 바치고, 미사 대신 밥과 물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7시 식사 전후해서 오전에는 주로 신문과 방문자들이 주고 간 책들을 읽고, 글을 쓰며 2시간 정도의 운동(테니스)을 잊지 않는다. 교도소는 오후 5시면 모두가 감방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굉장히 짧다. 그래서 오후에는 2시간 정도의 서예를 하고 건강을 위해 수시로 관절운동, 요가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감방 앞 화단을 개조하여 그곳에 상치, 쑥갓, 무우를 재배 무공해 채소를 먹으며, 김치도 담그어 이웃과 형

제애를 나눈다. 그외에 수시로 찾아오는 방문객을 맞고 세탁을 하며 지낸다. 그리고 감방 안에는 24시간 불을 켜고 지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신부님의 표현대로 “감옥생활 3년 동안 남은 것은 향소 이유서를 작성하고 수도 끝도 없이 책을 본 일이다.”

* 교도소 안에서의 보람

정 많고 인정 많은 신부님, 그러나 불의 앞에 단호하고 정의로운 신부님... 그는 소문만큼이나 교도소 안에서도 재소자들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심지어 재소자들은 신부님이 지나가면 먼 발치에서라도 목례를 한다. 신부님은 물리적으로 자유롭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재소자들과 사랑과 아픔을 나누며 신앙인으로서, 사제로서 밖에 있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것일까? 신부님의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삶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부님은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는 없지만 8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교도소 생활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점통 같은 더위, 4평 남짓한 감방에 15-16명씩 지내는 재소자들에게 미안해 하며 2평 남짓한 독방에서 그는 무엇을 담금질하고 있을까?

* 방북의 의미

1989년 8월 15일 오후 2시 22분,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양이 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온 날! 나는 조심스럽게 “신부님, 오는 8월 15일이면 신부님이 38선을 넘어온 지 3년이 되는 날인데 이제 나와야죠? 그리고 감회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신부님은 “벌써 3년인가? 그러나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정연 패션

대표 전 옥 영(세노비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25
☎ (집) 85-6111
(자) 87-5656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전주 오거리 천 보 당

안경, 콘택트렌즈, 금·은·보석·시계
손한성(바로로)·정정민(가타리나)
교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그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동정을 받고 나가고 싶진 않다. 돌이켜 보면 분단 선상에 이 민족의 평화와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드리는 순간처럼 사제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느낀 적이 없기에 그 순간 나는 사제로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른다. 그날 그 순간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숙연해진다. 그때 나의 행위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논란이 있었지만 애당초 내가 복에 간 것은 '88 올림픽 전후해서 서경원 의원, 문익환 목사, 유인호 씨가 차례로 구속되고 살벌한 공안정국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고심한 과묵 결정이었고, 나는 한 마리 양을 찾는 심정으로 방북했기에 혼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보면 철벽 같은 벽도 허물었는데 우리들 사이의 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통일은 삶의 문제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 통일을 살지는 않는 것 같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단의 벽을 헐었고 내 안에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다. 진정한 화해란 우선 나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물이 되어야 한다. 6·25 당시 북은 150만명, 남은 18만명이 희생되었는데 개인적으로 6·25의 아픔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수한 감정은 인정하면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통일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 민주화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분단의 아픔과 맞물려 있고, 남북 통치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묘하게 이를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외세에 통일문제를 맡기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 각자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돌출해내고 노력할 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아니 통일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느냐?"

문 신부님이 복에 있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사제로서 잊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종교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신부가 된지 똑똑히 보여주었고, 북의 형제들에게 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89년 6월 6일, 8월 13일 장춘 성당에서 드린 두 차례의 미사를 잊을 수가 없다. 미사가 북의 방방곡곡에 생방송되고, 그동안 없는 줄 알았던 교우들이 미사가 끝났는데도 떠날 줄 모르고 흐느끼는데..."

주교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주의 기도'를 바치며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는 순간 신부님의 상기된 모습과 함께 수인번호 '5하10, 1314'를 보며 저 수인번호가 훈장이 될 날은 언제일까? 얼마나 더 통일의 아픔을 살아야 할까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왜곡된 보도에 비쳐진,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문 신부님을 보고 '나는 통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며 교도소를 뒤로 했다.

요심이 (991) 김병오



방송애프터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와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민(테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사원모집

- 모집부분: 생산직 남사원 약간명
- 구비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자격: 종졸 이상 만20-30세 신체 건장한 남자
- 제출처: 당사 총무부
☎ 211-7411

무궁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하늘을 지켜나가는 무독성 무궁해 천연세제 '천연샘'과 '샘이랑'을 소중한 이웃과 함께 씁시다.

- 천연샘(주방세제)
- 샘이랑 (세안·세발·전신물비누)
- 아기샘(유아용 비누)
- 맑은샘(세탁용 물비누)
- 문의 및 보급처
☎ 86-2050
☎ 012-682-6543
전 경 자(베로니카)

성공적인 삶의 비결

8월10일(월) 및 14일(목)
오후2시 및 7시(각2회씩)

-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회
-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람.

관인 다예 미술 학원

방학 특강 수채화
크레파스화 집중지도
원장과 아동미술 전공 교사
철저 지도
박 경 화(마리아)
☎ 223-8355

여름방학 대 강좌

중·고
개강 8월 2일

대입 전문 **푸른샘학원**
전주 74-7424 코아 푸른 시청 사이

뿌리를 찾아서

월명동 성당

— 끈질긴 노력과 일치로 이룬 공동체 —



군산은 본시 옥구현의 군창(群倉) 소재지로서 1423년(세종 5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고 전북 일대 각 군·현의 수령들이 직접 세곡(稅穀)을 바치던 곳이라 군창(群倉)이라 불렀고 해외 교역의 시작과 함께 교역의 요지로 떠오르게 된 지역이다.

1929년에 군산 본당(현 둔율동 본당)의 설치 발령이 당시 대구교구 주교로부터 내려 군산지방 신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더니 1956년 10월 둔율동 본당 신자수의 증가로 자(子) 본당의 분가 계획에 의거 기성회를 조직, 건축기금을 조성하여 1960년 3월 군산시 월명동 104번지의 대지(1,970.24㎡)와 지상건물(773.55㎡)을 매입하여 교구에 본당 설정 승인 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 11월에

성베드로 사도를 주보로 하여 본당의 설정을 보았는데 당시 매입한 연와제의 창고 건물을 개수하여 성당으로 사용했으며 관할구역은 월명동을 비롯한 20여개 구역에 달했다. 그러다가 1979년 2월 오룡동 본당의 분리로 오룡동, 신평동 외 다수 지역이 이관되고 1984년 9월 옥봉 성당의 분가로 옥구읍 옥봉리 일원이 분리 이관되고 금년에 소룡동의 분리와 함께 소룡동의 일부 지역이 갈라져 나갔다. 이 본당의 신자수는 본당 설정 당시 550여명이던 것이 1977년에는 2,319명에 이르렀다. 이같은 신자수의 증가로 1978년 4월 새성당(2층-성당, 1층-사제관, 사무실, 회의실)을 준공, 축성하였고 1962년 11월 수녀원 건물 매입, 1964년 교리실 신축, 1986년

교육관을 신축하는 등 역대 신부들과 본당 신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일치된 힘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이담하고 깨끗한 본당 환경을 만들었다 할 것이다. 또한 성당 내 해성유치원의 개설로 현재 120여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개 레지오팀의 항구한 기도와 사목회를 비롯한 제단체의 활동들이 본당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초대 고희택(Gommaar Meerbergen) 신부를 비롯하여 현재 10대 한기호 신부가 사목하는 이곳은 한 분의 신부와 다섯 분의 수도자를 내었고 유치원 어린이에서 교회의 노인들까지 기도와 찬미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명상의 자리

우리의 자유

주님,
당신 뜻에 따르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진보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신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외부에 있는 어떠한 악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이길 줄 안다면
어떠한 패배도
우리를 비하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의향이 성실하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풍파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못과 패배의
첫째가는 책임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줄 안다면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전차량 91.92년형 최신형 관광버스로 완비하였습니다.
성지순례나 일반 전세 대절에 많이 애용하여 주십시오.

전 일 관광

(0652) 88-6666
조 선(안토니오)

대화 야채 효소 전북지사

체질 개선

김 영 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동서로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올젠,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장마철을 겪고 난 피아노의 관리 요령

1. 뚜껑을 열어 놓고 통풍이 잘 되게 한다.
2. 갑작스런 직사광선으로 말리지 않는다.
조율상담 김지나(세실리아)
☎ 82-9002

교 구 소 식

❖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복인사를 위한 기도회

- 때 : 8월10일(월) 저녁8시
- 곳 : 가톨릭센터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8월8일(토) 오후4시
- 곳 : 가톨릭센터

❖ 변산해수욕장 야외미사

- 때 : 8월9일까지 매주일 오후4시
- 곳 : 노천무대

❖ 전북일보 '성당의 종소리' 집필자 소개

- 정승헌 신부(글라라봉쇄수녀회)
- 장상호 신부(덕진)
- 김영수 신부(인후)
- 서석희 신부(효자)
- 이영우 신부(중앙)
- 정삼권 신부(전동)
- 정성만 신부(금암)

❖ 푸른군대 피정

- 때 : 8월6일(목) 오전10시
- 곳 : 덕진 성당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8월17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천사들의 합창(산수시험·이루어진 소원·생일초대)
- 내용 : 어느 날 산수시험을 치르겠다고 선생님이 말하자 발레리아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의 공책에서 시험 답안을 몰래 베끼다 파블로에게 들켜게 되는데...
- 회비 : 500원

❖ 축! 영명

- 8일(성도미니코) 강인찬 신부님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8월9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84-3231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8월9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 때 : 8월7일 오후4시-10일
- 곳 : 본원 (062)571-3004
- 회비 : 20,000원
- 접수 : 8월5일까지 전화로

❖ 살레시오수도회 여름 캠프

- 때 : 8월13일-15일
- 곳 :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변
- 대상 : 중3 이상 30세 미만 젊은이
- 회비 : 20,000원
- 신청 : 8월8일까지 (062)55-0332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 알기 쉬운 공해 추방 상식
가톨릭정의평화연구소 / 성바오로출판사

우리 주변에 만연된 공해를 몰아내기 위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과 그 해결 방안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책.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참생명 보호에 앞장서자

생명은 부모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하느님의 소유이며 그분 자비의 선물이다.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우리들은 모든 이를 참생명의 길로 이끄는 생명의 일꾼으로 불림받은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점차 사회가 험악해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더니 급

기야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죽이려 들고 있다.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참생명 그 자체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에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살인면허장과도 같은 현행법 개정안의 폐지를 위해 우리 모두의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로
☎ 84-7294

베로니카,플라워 슝

방식꽃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이
국 성 회(베로니카)
서 지 속(파비안나)
☎ 87-8427, 88-8426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 성십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공예가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 경 선(요한)
전 춘 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

내 친구들 피아노

아동의 입장에 서서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음악 이론 지도 철저
평화 주공APT 앞 부채공장 내
교육상담 ☎ 85-0484
김 아 셸 라

□ 평택시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람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청소년 교육행사에 협조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축"영명축일: 성라우렌시오(10일)신부님, 성녀 클라라(11일) 수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축하식: 9일 공식미사 후.
2. 성시간: 6일 저녁미사 후. 3. 병자봉성체: 7일,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사목회 상임위원회: 7일 저녁미사 후. 5. 복사단 소풍: 5일 상록해수욕장. 6. 감사: 김규래(베로니카) - 선봉기 1대기중. 7. 모임: ①울드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6일 전10시30분) ④장우회(9일 공식미사 후) ⑤꾸리아(9일 후2시) 8. 금주철소: 동전2,3만, 차주철소: 중노1,2만.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영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상인

1. 회합 ①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②대간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 4일 오전10시 ④울드레아-4일 저녁미사 후 ⑤자모회: 6일 오전10시 ⑥여성분과회: 8일 오전10시 ⑦요셉회: 9일 공식미사 후 ⑧꾸리아: 9일 오후2시 ⑨청년회: 9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해설-조옥례, 독서-전희송씨 부부, 봉헌-이태영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유복규, 독서-황윤주씨 부부, 봉헌-김달식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0, 180원 □ 교무금: 1,074, 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1. 신부님 영명축일: 10일, 축하식-9일 공식미사 후, 많은 기도바랍니다.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매일 첫주(오늘). 4. 첫 영성체 교리: 3일(월)~8일(토)까지, 학부모 모임-오후2시 5. 수녀원 신축헌금: 총신입누계-3,638만원, 헌금액-428만원. 6. 감사: 초·중·고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분께. 7. 성서일기: II 사무 13장~24장. 8. 침소봉사: 평화의 모후Pr. 9. 금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유순천 ②김순이,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김미남, 봉헌-최상욱, 안복성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연중 제18주일!
1. 자모회: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2시 ③자모회-8월5일(수)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8월5일(수) 오후8시30분 ⑤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8월9일) 오후2시. 2. 알뜰: ①성모승천대축일 미사시간-8월15일(토) 오전10시30분, 오후4시(여린이미사) 오후8시(중고생미사) ②청년회하계수련회-8월8일(토)~8월9일 장소-동상면 예비군 훈련장 ③교적정리-타본당으로 진출하신 분과 우리 본당으로 전입하신 분들은 진출입 신고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진출, 입신고지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바람. 3. 감사: 초등부 여름신앙학교와 중고생하계수련회에 수고해 주신 교리교사 선생님들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초막공동체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소교실 개강전까지 수요일: 새벽미사.
3. 침소봉사: 5구역 3만, 4만, 5만.
□ 지난주 봉헌금: 390,000원 □ 교무금: 256,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동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영태

1. 금주: ①첫 영성체 준비자 부모님 모임(공식미사 후, 소강당) ②울드레아(공식미사 후) ③재속클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2. 복사단 물놀이: 4일, 부모님들의 참석바람.
3. 성체강복 및 조배: 6일 오전10시.
4. 병자영성체: 7일-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청소년 하계수련회에 물적, 영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교우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2시) ③사목회(후8시)
7. 본당 레지오 야외행사: 23일, 장소-지리산.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완규

1. 성시간, 성체강복: 6일 후7시30분, 주의 거룩한 변모 축일.
2. 사목회 상임 위원회: 7일 후8시, 청소년 신앙학교 평가.
3. 축! 남성 42차 푸르실료 감승 수료: 함문길, 박종립, 황성주.
4. 신실 Pr간부 임명: 상아담Pr-단장: 최창숙, 부단장: 탁성자, 서기: 채금자, 회계: 문영자, 성조들의 모후Pr-단장: 김입순, 부단장: 임병자, 서기-유경자, 회계: 유금자, 축하드립니다.
5. 제41차 M.E부부 주말 강습회 신청: 오늘까지.
6. 국악미사책 판매: 1권-1,000원, 전신자가 구입 바랍니다.
7. 신앙학교에 협조해 주신 교우자매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8. 익명의 은인께 감사: 전축헌금 5백만원, 감사드립니다.
9. 구내가족 휴가: 3일~5일, 옥구군 죽도에서.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사목회: 오늘 오후8시.
2. 구역장월례회: 4일(화) 오후8시30분.
3. 대간회: 6일(목) 오후8시30분.
4.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M.E 8월주말에 초대받았음을 축하합니다: 이기남, 김순이 부부, 박윤기, 윤영이 부부, 김사육, 선문숙 부부.
6. 여름신앙학교를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유연숙, 강희연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김영희, 김길송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 이동섭

※ 연중 제18주일입니다.
1. 모임안내: ①안나회-오늘12시(교육관) ②구역봉사자모임-5일(수) 전10시30분 ③사목회-7일(금) 후8시 ④까리따스-7일(금) 후3시 ⑤선교분과-7일(금) 12시 ⑥울드레아-다음주일 야유회 11시출발
2. 미사안내: 금주-하늘의 문, 셋별의 모후 차주-애덕의 모후, 인자하신 모후
※ 8월은 유아세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45, 100원 □ 교무금: 2,047, 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1. 모임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제대회-3(월) 오전10시. ③여성분과회-7(금) 10시미사 후.
2. 봉성체: 6(목) 오후 신청자에 한함.
3. 요셉회, 한나회 단합대회: 11(화) 오전9시 모정리.
4. 청년수련회: 7(금)~9(일) 무주구천동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주모임-울드레아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김영근, ②정명희, 봉헌-안내-고영표 부부, 송대식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인수 ②문영주, 봉헌-안내-김영길 부부, 박남철 부부.